

장미계단길

S#1. 버스 정류장 앞 골목 / 오후

시내버스가 매연을 뿜으며 떠난다.

정류장에 내린 지안이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빠르게 걸어간다.

지안 아니요, 과장님. 업체 쪽에서 단가 안 맞는다고 그렇게는 진행 안 한대요.

기획서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내일 출근하자마자 미팅 잡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뒤로 저만치 떨어져 걷는 엄마가 보인다.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지만, 딸의 통화를 방해하지 않으려 묵묵히 뒤를 따른다.

지안이 전화를 끊고 뒤를 돌아본다. 저만치 뒤쳐진 엄마를 보고 걸음을 멈춘다.

지안 괜찮아?

엄마 동네가 하도 오랜만이라 구경하느라 그래.

그나저나 너는 쉬는 날까지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있냐.

지안 회사 일이 다 그렇지 뭐.

지안이 가방끈을 고쳐 메다 문득 엄마의 발을 내려다본다.

지안의 목소리가 통명스러워진다.

지안 ...근데 걸음걸이가 왜 그래? 발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병원 좀 가라니까.

엄마 한의원 가서 침 맞았어. 오랜만에 많이 걸어서 그래.

지안의 핸드폰이 다시 길게 진동한다. 액정 화면을 보고 한숨을 쉬며 다시 전화를 귀에 댄다.

이번에는 앞장서 걸어가되, 아까와 달리 은근히 엄마의 속도를 의식하며 걸음이 느려진다.

지안 (다시 전화를 받으며) 네, 과장님.

엄마는 잠시 멈춰 서서 아픈 발을 가만히 주무른 뒤, 느릿하게 딸의 뒤를 따른다.

S#2. 달동네 계단 / 오후

부동산 간판 바로 옆으로 가파른 계단이 보인다.

이 계단만 몇 칸 올라서면 할머니 집 대문으로 이어지는 골목이다. 거리는 짧지만 경사가 높다.

지안이 뒤돌아서 엄마 어깨에 걸린 천 가방을 뺏어 어깨에 멘다.

엄마 냅뒹, 무겁지도 않은 걸 뿔.

지안 난간이나 잡아. 넘어지지 말고.

엄마 걱정도 팔자다.

엄마는 지안을 지나쳐 먼저 계단을 오른다.

지안은 말없이 가방끈을 고쳐 메고, 앞서가는 엄마의 발걸음 뒤에 서서 묵묵히 보폭을 맞춘다.

S#3. 할머니 집 대문 앞 / 오후

주소판 ‘장미계단길 75’가 붙은 오래된 은색 철문 앞.

엄마는 대문 앞에 서자마자 망설임 없이 담벼락 틈과 화단 바닥을 훑는다.

그리고 굴러다니던 뽕족하고 긴 녹슨 못 한 조각을 주워 든다.

엄마는 당연하다는 듯 문틈 사이 구멍에 못 끝을 밀어 넣고 이리저리 쑤신다.

탈각, 탈각 하는 소리가 좁은 골목에 조용히 울린다.

지안 (황당한 듯 보며) 뭐 하는 거야? 열쇠 없어?

엄마 여기 열쇠 잃어버린 지가 언젠데. (못 끝을 깊숙이 툭 친다) 뻘다.

탁, 안에서 빗장 풀리는 소리.

엄마가 대문을 밀어 열면, 사방이 민트색 페인트로 칠해진 좁은 마당이 드러난다.

왼편에는 초록색 콘크리트 계단이 위층으로 가파르게 이어져 있고, 정면에는 갈색 알루미늄 프레임의 미닫이 유리문이 굳게 닫혀 있다. 초록색 바닥 한구석에는 파란 호스가 연결된 수도꼭지가 보인다.

엄마는 문을 딸 때 찢던 녹슨 못을 수도꼭지 옆 구석에 툭 던져두고 마당 안으로 들어선다.

지안도 가방을 멘 채 그 뒤를 따른다.

엄마가 정면의 미닫이문 손잡이를 잡고 옆으로 거칠게 밀어낸다.

드르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어두운 집 안 내부가 드러난다.

주방과 집 안 구석에 미처 치우지 못한 커다란 냉장고와 자질구레한 짐들이 보인다.

지안은 열린 문틈 너머로 집 안을 응시한다.

지안 다 치웠다더니 많이 남았네.

엄마 냉장고 같은 건 내일 트럭 와야 가져간대. 저 안에 몇 개 남은 것만 묶어서 내놓자.

엄마는 문턱을 넘어 어두운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지안은 오래된 냉장고를 숙 쳐다보며 가방들을 고쳐 메고 그 뒤를 따른다.

S#4. 집 내부 / 오후

나무 복도. 지안과 엄마가 걸어 들어갈 때마다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

엄마는 안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굴러다니는 할머니의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개어 상자에 담는다.

지안은 주방 구석에서 먼지 낀 플라스틱 대야와 낡은 주방용품들을 커다란 쓰레기봉투에 쑤셔 넣는다.

테이프를 찢어 뜯어 상자를 밀봉하는 소리가 빈집을 채운다.

바닥에 묶인 상자가 서너 개 쌓이고 지안이 땀으로 젖은 앞머리를 쓸어 올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다.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낮게 울린다.

지안 엄마, 나 배고파서 더는 못 하겠어. 밥 먹고 하자.

지안이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켜다. 주소를 입력하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두드리던 지안의 움직임이 멈춘다. 화면 상단에 창이 뜬다. [현재 지역은 배달이 불가능합니다.]

지안 아,... 여기 배달 안 된다. 너무 꼭대기라 그런가.

엄마 (방에서 나오며) 여기까지 배달 오토바이가 힘들게 왜 오겠어. 대충 정리하고 나가서 먹자.

지안 나 지금 한 걸음도 못 걸어.

지안, 문득 덩그러니 서 있는 낡은 냉장고를 바라본다.

자리에서 일어난 지안이 냉장고로 걸어가 문을 열어본다. 성에만 가득할 뿐 텅 비어있다.

실망하며 냉장고 문을 탁 닫는데, 문이 흔들리면서 냉장고 옆면에 자석으로 붙어 있던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진다. 지안이 허리를 숙여 줍는다. 기름때가 절어 누렇게 변한 중국집 메뉴판이다.

지안 ...엄마, 여기 냉장고 옆에 중국집 메뉴판 붙어있는데? 옛날 거 같아. 북경..반점?

엄마 그게 아직도 붙어있어? 번호 바뀌었을걸. 네 할머니 살아 계실 때 보던 건데.

지안 혹시 모르잖아. (메뉴판 번호를 스마트폰에 누르며 전화를 건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 장미계단길75인데요. 혹시 배달 되나요? ...아, 네! 짜장면 두 개요.

지안이 전화를 끊고 엄마를 본다.

지안 온대!

엄마 (신기한 듯) 진짜 온대? 거긴 아직도 장사하네.

엄마는 행한 주방을 바라본다.

지안은 들고 있던 낡은 메뉴판을 냉장고 앞면에 자석으로 꼭 붙여놓는다.

S#5. 안방 / 오후

텅 빈 안방 바닥. 배달된 짜장면 그릇 두 개가 놓여 있다.

두 사람은 맨바닥에 마주 앉아 말없이 면을 비빈다. 젓가락질 소리만 방 안을 채운다.

엄마가 슬그머니 한쪽 다리를 뻗는다. 거친 손으로 발뒤꿈치를 가만히 누른다.

지안은 그 모습을 힐끗 보더니, 자기 그릇에 있던 오이 고명을 젓가락으로 떠서 엄마 그릇에 툭 던진다.

엄마 오이 안 먹어? 잘 먹었잖아.

지안 그냥... 엄마 먹으라고.

엄마 ...

지안 발 아프면 앉아 있어, 나머지 내가 치울게.

엄마 다 먹고 그릇이나 내놔.

S#6. 집 내부 / 늦은 오후

방 안 깊숙이 주황빛 노을이 길게 들어온다.

지안이 옷장 위 깊숙한 곳에 올려져 있던 짐을 까치발을 들고 가구 밖으로 끌어내린다.

그 순간, 상단에 쌓여 있던 묵은 먼지가 지안의 머리와 얼굴 위로 툭, 투두둑 떨어진다.

지안이 휘이휘이 손짓을 하며 재채기를 하지만, 이미 머리카락과 이마 위로 먼지가 가득 앉았다.

마당에서 쓸던 빗자루를 들고 지나가던 엄마가 문턱에 멈춰 서서 지안을 가만히 쳐다본다.

엄마 먼지 다 뒤집어썼네.

지안은 머리카락을 대충 털어내며 얼굴을 찡그린다.

엄마 싱크대 옆에 샤워기로 대충 행귀.

엄마는 다시 덤덤하게 안방으로 걸어가고, 지안은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주방 쪽으로 향한다.

S#7. 주방 / 늦은 오후

싱크대 앞쪽 벽면에 샤워기가 낮게 붙어 있다.

지안이 좁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고개를 깊숙이 숙인다.

샤워기를 틀자 싹아아 하는 거친 물소리가 주방에 퍼진다.

지안이 눈을 감은 채 맹물로 머리를 비비다가, 싱크대 모서리에 이마를 툭 찡는다.

지안이 "아!" 하고 인상을 쓰며 멈칫하자, 엄마가 슬그머니 들어와 지안의 손에서 샤워기를 가져간다.

지안 응?

엄마 가만히 있어 봐. 눈에 물 들어간다.

지안 내가 해. 엄마 발 아프잖아.

엄마 가만히 있으래두. (샤워기 온도를 조절하며) 물 어때. 차가워?

지안 어... 조금만 따뜻하게.

엄마가 손가락으로 지안의 두피 구석구석을 푹푹 문지르며 먼지를 씻겨낸다.

물소리가 바닥으로 흘러내려 가는 소리만 주방을 채운다.

지안은 눈을 꼭 감은 채, 머리를 조심조심 만지는 엄마의 손길을 가만히 받아내고 있다.

S#8. 안방 / 저녁

창문 격자무늬 사이로 새어 들어온 주황색 가로등 불빛이 보인다.

방구석에는 먹고 난 짜장면 그릇 두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지안이 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푹푹 털어 말린다.

머리를 털던 지안은 방구석 먼지가 쌓여 있던 곳에서 신기한 물건을 확인한다. 낡은 나무 지압 롤러다.

지안이 지압 롤러를 집어 들어 먼지를 대충 쓱쓱 닦아내고는, 손바닥으로 롤러를 가볍게 밀어본다.

드르륵... 드르륵. 주방 문턱에 걸터앉아 맨발바닥을 주무르던 엄마가 소리가 나는 안방을 돌아본다.

엄마 그게 아직 거기 있네.

지안 이게 뭐야?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안의 옆에 앉는다.

엄마가 롤러 위에 발을 올린다.

드르륵... 드르륵...

엄마 여름밤만 되면 네 할머니가 구석에서 맨날 이걸 굴렸어.

잠귀 밝은 나는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저 방에서 맨날 문을 꽁 닫고 잤는데.

지안 ...

엄마 (발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굴리며) ...되게 아프네, 이거

엄마의 발을 따라 지압 롤러가 다시 느릿하게 구른다.

드르륵, 드르륵. 지안은 수건을 머리에 얹은 채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

이내 허리를 숙여 바닥에 뒹굴던 짜장면 그릇을 비닐봉지로 단단하게 묶는다.

S#9. 할머니 집 대문 앞 / 저녁

오래된 은색 철문이 무겁게 닫힌다. 허술한 빗장이 안에서 걸리는 둔탁한 소리.

엄마는 못을 철문 바닥 구석에 놓아두고 돌아선다.

지안의 왼손에는 나무 지압 롤러가 들려 있고, 오른손에는 짜장면 그릇이 담긴 비닐봉지가 쥐어져 있다.

대문 앞 주황색 가로등 아래로 가파른 계단이 뻗어 있다.

저 멀리 아래쪽으로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다.

지안 이 그릇은 그냥 여기 두고 가?

엄마 내려가는 길에 전봇대 밑에 내놓으면 돼. 아저씨가 아침에 알아서 찾아가서.

지안 ...엄마, 내 옷 잡아. 어두워.

엄마 괜찮아.

엄마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딛다가, 발바닥이 아픈지 움찔하며 지안의 어깨 옷자락을 슬그머니 움켜쥐는다.

계단을 디딜 때마다 엄마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아래로 기우뚱한다.

지안은 모른 척 걸음을 아주 느리게 늦춰 엄마의 발에 맞춘다.

걸을 때마다 짜장면 비닐봉지가 지안의 다리에 부딪혀 부스럭거리는 소리, 두 사람의 둔탁한 운동화 소리가 밤 골목에 낮게 퍼진다. 주황색 불빛을 받으며, 모녀는 가파른 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간다.